

“KIA 마운드 재건 ‘좌완 삼총사’에 맡겨주세요”



김여울 기자

TIGERS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의 '루키 좌완 트리오'가 3인 3색의 꿈을 키우고 있다.

KIA는 일본 오키나와에 마무리캠프를 차리고 2019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14명의 투수가 참가한 이번 캠프에는 하준영, 김유신, 백미카엘 등 3명의 2018 신인 선수도 포함됐다.

원손으로 공을 던지는 세 사람. '좌투수'라는 오랜 고민을 가진 KIA의 미래인 이들은 함께 프로 생활을 시작한 친구이자 경쟁자로서 첫 마무리를 캠프를 보내고 있다.

김유신은 올 시즌 세 친구 중 가장 먼저 1군 무대에 등장했다.

지난 5월 1일 롯데 원정경기에 구원 투수로 나와 데뷔전을 치른 그는 6월 24일 넥센전에서는 선발로도 출격했다.

김유신은 "첫 등판에서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았

하준영·김유신·백미카엘 신인들 첫 마무리 캠프...각도·스피드 훈련 주력
김유신 직구·하준영 변화구 장점...백미카엘 내년 1군 데뷔 목표 구슬땀

는데) 공 3개를 던지고 끝났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웃음)"며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첫 시즌에 1군 경험도 하고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스피드가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유신이 자신의 장점으로 꼽는 부분은 제구와 타자들과 싸움이다.

김유신은 "자신 있게 던지는 스타일이다. 타자들의 심리를 읽으면서 코스로 못 치게 던지는 부분도 자신 있다. 던지다 보면 감이 온다"며 "고등학교 때 코치님께서 타자가 타석에 붙었는지 아닌지, 어떤 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보고 승부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각과 스피드에 공을 들고 있다.

김유신은 "직구 스피드를 좀 더 끌어올려야 한다. 슬라이더 각을 예리하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10km나 올랐다. 상무 지원을 할 생각이라서 내년 시즌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더 잘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6월 16일 LG 잠실전을 통해서 프로 첫걸음을 내디딘 하준영은 올 시즌 15경기에 나와 경험을

쌓았다.

하준영은 "데뷔전날 잠실 구장이 매진이었다. 사람도 많고 긴장을 많이 했다. 첫 경기에서 너무 긴장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했던 것 같다"고 웃었다. 또 "1군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2군에서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군에서 경기를 했지만 많이 아쉬운 한 해였다. 내 기량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체력, 자신감으로 꼽았다. 하지만 변화구가 좋은 하준영은 첫 시즌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발전된 2019시즌을 꿈꾸고 있다.

하준영은 "변화구가 내 장점이다. 특히 체인지업에 자신 있다. 캠프에서 변화구 컨트롤과 밸런스에 신경 쓰고 있다"며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있어서 든든하다. 다치지 말고 새 시즌 모두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미카엘은 프로 데뷔를 목표로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두 친구의 1군 데뷔는 부러움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큰 동기부여도 됐다.

백미카엘은 "같은 나이에 같이 입단한 친구들이



왼쪽부터 하준영, 김유신, 백미카엘.

데 1군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더 잘하자면서 독해하는 것 같다"며 "올 시즌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 결과를 봤을 때는 기록으로 보나 보여드린 게 없어서 아쉽다. 기록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꼽는 장점은 배짱과 직구 힘이다.

"배짱 좋은 투수"라며 웃은 백미카엘은 "제구가

잘 되는 편이고 직구에 힘이 있다. 프로 와서 폼 많이 바꿨는데 이번 캠프에서는 한 폼으로 고정해서 하고 있다. 그동안 세트 포지션만 했었는데 와인드업을 하면서 하고 있다. 흥백전에서 바꾼 폼으로 공을 던져봤는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꼭 1군에서 친구들과 활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wool@kwangju.co.kr



20일 오키나와 캠프에서 열린 '상황에 맞는 타격 내기'에서 선수단 마지막 타자 유민상이 미션에 성공하며 기뻐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기 퇴근 전 타격 대결 ... 훈련 잠시 잊고 '하하하'

감독 vs 야수 양보 없는 내기 ... 선수들 이긴 후 꿀맛 휴식

20일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 훈련이 진행된 오키나와 키클링장.

"특별 대결"을 앞두고 야수조의 라커룸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열심히 방망이를 휘둘러보던 야수들은 "꼭 이기겠다"는 합성을 지르며 경기장으로 향했다.

배팅 게이지에서 KIA 야수조를 맞이한 상대는 바로 김기태 감독이었다.

이날 훈련 전 캠프 주장 이인행의 요청으로 성사된 타격 맞대결이었다.

김기태 감독 홀로 한 팀을 구성하고 야수조 전체가 돌아가면서 감독과 상대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조건이 있었다. '주자 1·3루에서 푸시 버트, 주자 2루에 바스타, 주자 1루에 진루타' 등 상대팀에서 제시한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해야 한다.

심판으로 나선 김민호 총괄코치가 타격의 성공

과 실패 여부를 판단,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팀이 승리팀이 되는 대결이었다.

선수들은 특별한 대결을 위해 '훈련'을 내걸었다.

만약 선수들이 내기에서 지면 21일 휴식일을 반납하고 경기장에 나와 훈련을 하기로 했다. 반대로 선수들이 이기면 바로 짐을 싸서 숙소로 돌아가는 조건이 붙었다.

대결이 시작되자 외야에서 캐치볼을 하던 투수조도 내야로 이동해 관람자가 됐다.

현역 시절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했던 김 감독은 상대의 주문과 상황에 맞는 타격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승부를 유리하게 끌고 갔다.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은 선수들은 마지막 타자로 나선 유민상이 미션에 성공하면서 승리팀이 됐다.

"내기에서 이기겠노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김 감독은 캠프 내내 열심히 된 제자들을 위해 "가장 자신 있는 타격하기"등을 주문하는 등 선수단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약속대로 승자가 된 선수들은 기분 좋게 일찍 훈련을 마치고 꿀맛 휴식을 얻었다.

김 감독은 대결이 끝난 뒤 가진 선수단 미팅에서 "타석에 서면서 긴장이 되지 않았느냐? 2만 관중

앞에서 이런 타격을 한다고 생각해보라"면서 "이런 플레이는 언제 하는 것인가? 중요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50%와 50%로 맞서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가져오면 크게 이길 수 있다. 투수들도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점수를 내기 어려운데 릭모션, 도루, 원바운드 볼 등으로 쉽게 점수를 준다"고 말했다.

또 "팀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내가 잘해서 이기니까 동료들도 좋아하지 않느냐. 팀이 이기면 팬들도 좋아하는 것이다"며 생각하는 야구, 세밀한 야구 또 이기는 야구를 주문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외국인 투수 터너·외야수 해즐베이커 영입

KIA 타이거즈가 2019시즌에 함께할 새 외국인 투수와 외야수를 영입했다.

KIA는 20일 외국인 투수 제이콥 터너(우투우타·1991년생)와 외야수 제레미 해즐베이커(우투좌타·1987년생)와 계약을 맺었다.

100만 달러(계약금 30만, 연봉 70만)에 계약을 끝낸 제이콥 터너는 미국 미주리주 출신으로 신장 193cm, 체중 98kg의 체격을 지니고 있다.

최고 156km의 직구가 강점으로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제구력을 갖췄다.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는다.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안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02경기에 나와 14승 31패 평균자책점 5.37을,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안 135경기에 나서 32승 37패 평균자책점 3.76을 기록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선 마이애미 말린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소속으로 뛰었으며, 마이너리그에선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팀인 톨레도 머드헨스와 마이애미 산하 뉴올리언스 베이비케이즈 소속으로 활약했다.

KIA는 제레미 해즐베이커와는 7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50만)에 계약을 맺었다.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인 제레미 해즐베이커는 신장 190cm 체중 86kg으로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10시즌 동안 뛰었다.

제레미 해즐베이커는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갖춘 중장거리형 타자라는 평가다. 또 중견수를 비롯한 외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력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55경기에 출장 65안타(14홈런) 38타점 45득점 6도루 타율 0.258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터너

해즐베이커

양의지·최정... KBO, FA 선수 15명 발표

임창용 등 7명 미신청

올해 스토브리그 최대어로 손꼽히는 양의지(31·두산)가 FA 시장에 나온다.

KBO는 20일 2019년 FA 승인 선수 15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15명 가운데 신규 자격은 10명, 재자격은 4명, 자격 유지는 1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역 최고의 포수인 양의지다. 2006년 두산으로 프로에 입문한 양의지는 통산 106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9, 980안타, 125홈런, 547타점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타율 0.358의 고타율에 23홈런, 77타점을 올리며 두산의 정규시즌 우승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포수인 이재원(30·SK)도 FA 시장에 풀린다. 이 밖에 내야수 송광민(35), 외야수 최진행(33·이상 한화), 내야수 김민성(30), 투수 이보근(32·이상 넥센), 내야수 김상수(28·삼성), 투수 노경은(34·롯데), 투수 금민철(32·kt), 내야수 모창민(33·NC)까지 10명의 선수가 이번엔 데뷔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재자격 선수는 외야수 최정(31·SK)이 눈에 띈다. 한편, 올해 FA 미신청 선수는 투수 장원준(33·두산), 투수 임창용(42·KIA), 투수 장원삼(35), 내야수 손주인(35)·외야수 박한이(39·이상 삼성), 투수 이명우(36·롯데), 내야수 박기혁(37·kt)까지 7명이다.

/연합뉴스